

‘오월어머니의 노래 1’ 오는 30일 ACC극장서 음반 제작 발표회

오월어머니 40년 인생, 노래가 되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1’ 앨범지acket

가족들을 위해 청춘을 던진 오월어머니들의 40년 인생이 노래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자식과 남편을 위해 오월어머니들은 왜곡과 편협에 맞서 전두환의 집앞으로, 청와대로, 국회로 찾아갔다.

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최후 항쟁지 옛 전남 도청을 역사의 원형으로 남기고자 현장에 있다.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오월어머니의 노래 1’ 음반 제작 발표회를 ACC 국립극장 극장2에서 연다. 사진은 오월어머니단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투쟁 열다섯 분 어머니 삶 기록 광주민예총, 靑靑당·아시아문화원 3년여 협업사업 결실

‘오월어머니의 노래 1’ 음반 제작 발표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극장 극장2에서 연다.

노래 제작은 어머니 열다섯 분의 40년 삶을 노래로 만들어 음반으로 제작하는 마지막 결과물이다. 민예총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원(ACI)의 3년간 협업사업 결과물이기도 하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1’ 음반은 역사 기록이자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다.

열다섯 분 어머니들은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앞서 2019년 열다섯 분의 오월어머니의 삶이 열다섯 명의 광주·전남작가회 작가들의 손을 거쳐 구술 에세이와 시로 엮은 책자 ‘어머니의 노래’로 발간됐다.

구술 채록에는 유은희, 고영서, 박인하, 양인자, 엄수경, 조현옥, 김지원, 정미숙, 이재연, 이진, 문귀숙, 조남희, 함진원, 박미경, 강희진이 참여했다.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어머니의 노래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작사, 작곡이 완성됐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곡들을 써낸 이경용,

류형선, 김현성, 이지상, 손병휘, 박종화, 한보리, 김원중, 김준범, 이범준이 참여해 어머니들의 40년 한을 가사와 멜로디로 풀어냈다.

올해는 어머니의 노래 콘텐츠 제작 사업인 음반, 영상상이 완성됐다.

영상에선 그간의 음반 녹음 과정과 인터뷰, 어머니들의 삶의 순간들이 뮤직비디오 형태로 담겨있다.

음반은 시디와 패키지 앨범 두 종류로 제작됐으며, 앨범은 시디와 노래 가사집, 15곡의 악보, 굿즈형 USB 앨범으로 구성됐다.

오월의 꽃이라 불리는 이팝나무꽃이 앨범ジャケット의 이미지다.

생김새가 ‘쌀밥’을 닮아 춘궁기 배고픈 민중들을 위로했던 이팝꽃은 해마다 오월이면 망월묘지 가는 길목에 흐드러지게 피어 서러운 낯들을 마주한다.

한 송이의 독립된 꽃들이 여러 개 붙어있는 모양은 오월이라는 한 송이에 각자의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오월어머니들과 꼭 닮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음반 또한 오월어머니들 각자의 삶처럼 솔로곡으로 구성됐다.

음반에 참여한 오월어머니들은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음반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기억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음반 기획과정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참여한 추혜성 어머니는 “음반 제작 과정의 우여곡절을 말로 하라면 다 못한다. 어머니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돌아가시거나 편찮은 분들이 많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음반이 완성되니 어머니들을 받드는 일 하나를 마친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2021 어머니의 노래 콘텐츠 제작사업은 총감독으로 박종화 광주민예총 이사장이, 음악 감독으로는 류형선 씨가 선정돼 진행됐다.

박종화 총감독은 “이번 음반은 어머니들의 입을 빌어 오월 당사자들의 피 맺힌 40년의 삶을 노래로 기록하고 예술로 승화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다”며 “작업 내내 마음을 천근의 무게로 짓눌렀던 죄송함을 껴켜어 담아 음반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 발표회까지의 과정은 지난 3년 간 오월어머니들과 100명이 넘는 예술인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서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며 “이 콘텐츠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고,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국립극장에서 새롭게 제작된 공연으로 올려지기를 희망한다. 어머니들이 오월 알리미로 여생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명진기자

가족 오페라로 만나는 ‘헨젤과 그레텔’

광주시립오페라단, 22-23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을 개최한다.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 작곡가 휴페르크가 ‘그림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누이동생 아델하이

트 베테의 대본에 곡을 붙여 만든 동화 오페라다.

독일 민요를 담은 아름다운 음악 위에 요정과 마녀, 과자로 만든 집이 등장하는 등 환상이 넘치는 무대가 꾸며져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눈과 귀까지 사로잡는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예술감독과 연출에는 현재 강원 해오름 오페라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이범로, 지휘에는 현재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인욱 등이 참여하며, 카메라타 전남의 오케스트라 연주자 더해질 예정이다.

헨젤역에는 윤한나·김주희, 그레텔역에는 장지에·김제니, 마녀역에는 김동섭·문주리, 아버지 지역에는 김지영·박성훈, 어머니역에는 민숙연·임지현, 잠의 요정역은 정은지·박주연이 출연한다. /최명진기자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 변화라고만 한다면



장희구 박사 (429)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礪石樓(축석루)[1]
퇴계 이항

시인의 생존지와 임진왜란과는 관계가 없지만, 축석루는 의기의 한이 서려 있다. 정면에 ‘의기사’라는 간판 좌측에 일제 때 명기 산홍(山紅)의 시가 걸려 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산홍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을사오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친일파 이지용이 천금을 가지고 와서 첩이 돼 줄 것을 요청하자 산홍은 거절했다. 강호에 떨어져 살았던 지 며칠이나 되었더니, 혼자 거닐다가 시를 읊으며 높은 누에 올라 본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변안해 본다.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고만 한다면(礪石樓)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전구인 철원읍시다.

작가는 퇴계(退溪) 이항(李滉:1501-1570)으로 조선 중기 율곡과 쌍벽을 이룬 유학자다. 풍기 군수로 재직시 조정에 건의해 1550년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과 함께 면세와 면역의 특권도 부여받았다. 이로써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됐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강호에 떨어져 살았던 지 며칠이나 되었더니 / 혼자 거닐다가 시를 읊고 높은 누에 올라 보네 //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고만 한다면 / 눈에 드는 긴 강은 만고의 흐름이려내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축석루에 올라서서]로 번역된다. 남강에 접한 벼랑 위에 자리 잡은 단층 팔각집의 웅장한 건물로, 진주성의 주장대(主將臺)다. 1241년 고려 고종 28년 축성 당시에 부사 김충광 등의 손으로 창건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선 축석루(礪石樓)로 명명했다.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여 년 전이다. 이렇게 보면 제일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임진란의 뜨거운 전훈



(戰痕)을 알지 못하고 있어 보인 시상이다. 강호에 떨어져 살았던 지 며칠이나

되었더니, 거닐다가 시를 읊고 높은 누에 올라 본다고 했다. 누에 오르면 시상이 절로 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화자는 전구의 선경에 이어 후구의 후정은 한 때의 변화가 아니라 만고에 흐르는 남강의 유유함을 빗대고 있다.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고만 한다면, 눈에 드는 긴 강은 만고의 흐름이겠다는 시상을 만지고 있다. 이어진 2구에서는 [지난 일이 아득해라 동우리의 학은 높고 / 나그네 회포 일렁여라 들 구름만 떠가는구나 // 변화한 것은 시상(詩想)에 들어오지 않으니 한 번 웃어 보며 말없이 푸른 물을 굽어본다]고 했다.

*한자와 어구
落磯: 떨어져 있다. 江湖: 강호. 知幾日: 며칠 되었는지 알 수 없다. 行吟詩復: 거닐다가 시를 읊다. 上高樓: 높은 누에 오르다. // 橫空: 빛긴 공간. 飛雨: 비가 날다. -時變: 한 때의 변화. 入眼: 눈에 들다. 長江: 긴 강. 여기서 진주 남강을 뜻함. 萬古流: 만고의 흐름이려나.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성공적 ‘아트테크’ 어떻게 할까

광주문화재단 윤익 감독 초청 강좌

광주문화재단의 하반기 인문학 강좌 ‘미술품 수집과 아트테크’가 오는 21-22일 열린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윤익(사진)아트광주21 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문화예술작업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진행된다.

먼저, 순수한 문화적 활동에서 시작하는 아트 컬렉션과 향후 경제적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아트테크를 비교 분석해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미

술품 수집의 방법을 강연한다.

이어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품 수집 관련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봄, 미술품 수집으로 얻어지는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설명하는 ‘미술품 수집과 아트테크의 성공 사례’ 강연이 진행된다.

윤익 감독은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9년 간 재직했으며, 2020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 현재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1) 총감독을 맡는 등 지역에서 미술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온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